

도·교육청 예산 결산검사 돌입

도의회 결산검사위, 도교육청 6일까지 전북도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검사

전북도의회가 최근 전북도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돌입했다.

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최영일)는 이날 6일까지 도교육청, 전북도는 4월22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20일 동안 지난해 전북도 6조1,317억원, 도교육청 3조8,299억원의 예산이 애초 목적대로 쓰였는지와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핀다.

결산검사위원은 최영일, 이명연, 두세훈 의원 등 도의원 3명과 전직공무원 5명, 공인회계사 1명 그리고 세무사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위원들은 지난해 도와 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등 6개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 건전성과 적절성, 효율성 등을 집중 검사한다.

결산검사 대상기관은 도와 도교육청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과 사업소도 포함한다.

한편 결산검사위원회가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오는 6월 열리는 제364회 정례회에 제출돼 승인을 받게 된다.

전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최영일 대표위원은 "돈을 다 쓰고 나면 제대로 썼는지, 낭비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도민의 시각에서 집행부가 지난해 세입을 계획대로 징수했는지, 예산 낭비사례가 없는지, 관행으로 예산이 잘못 집행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결산검사에 임하겠다"고 소

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 대표위원은 "매년 지출예산액을 과다 추계하거나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용액(미사용액)으로 남기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전북재정이 넉넉치 않은데 그나마 제대로 예산집행 조차 이뤄지지 않는 일은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대표위원은 "행정기관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집행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위해 4월 3일(수) 익산 맑은샘유치원, 군산 월명초등학교 현장방문을 실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소통의 자리"...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의 청년기본법 등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 왼쪽) 이날 간담회에서 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청년기본법 등의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부터 본회의 출결까지"... 국회 홈페이지 공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국회의원 세비를 비롯해 국회가 사용하는 각종 예산과 의원들의 본회의 출결현황 등 입법활동 내용이 국회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가 혁신자문위원회 활동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혁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그동안 관행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

회가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점도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국회의원에겐 지급되는 세비는 물론 각종 지원경비, 해외출장 내역, 정책용역 결과물과 정책자료집,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지금까지 국민이 궁금해 하던 국회의원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런 내용들은 국회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에 매달 또는 분기, 연 단위로 주기적으로 올리겠다"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을 마치는 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공개를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사무총장은 또 이번 정보공개 확대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같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공개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의원들이 더욱 충실하게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사무처는 여전히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있는 정보를 재검토해 공개로 전환할 것"이라며 "사전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靑 "장관 후보자 5명 임명 일정, 종합적으로 판단"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5명의 임명 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 절차에 대해 "1명(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은 오늘(국회에서 보고서 채택 결정을) 하고 2명(진영 행정안전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은 추후 일정이 잡혔다"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나머지 2명은 아직(일정) 안 잡혔다"며 "임명 일정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모아서 판단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승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뉴시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월 개최

현 정부 들어 열리는 최대 규모 국제회의의 부산서 "기반 시설·개최 의지 등 고려"... 김정은 초청 검토

정부가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화 관계 수립 30년을 맞아 준비 중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정상 및 아세안 사무총장을 초청해 오는 11월 25~28일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25일 공식 환영 만찬을 열고 26일 특별정상회의 본회의, 정상 공무 만찬, 공동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번 행사는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정부는 또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해 11월 27일 베트남,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정상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메콩 회의는 2011년부터 매년 장관급 회의로 열렸지만 올해 정상급으로 격상됐다. /뉴시스

윤 수석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신남방정책의 각 분야별 성과를 점검하고 신남방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개최지는 부산, 인천, 서울, 제주도 등이 거론됐다. 이 중 행사 유치에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왔던 부산이 낙점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달 24~28일 아세안 국가들을 방문해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협력하고 정상회의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다.

청와대는 기반 시설 구비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개최 의지 등을 고려해 부산을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막혔던 '농업용 수로' 물꼬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 여타조사 대상 선정 김중회 의원 "정부예산 편성까지 역량 결집"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농경지에 물길이 닿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중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3,870억 규모의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금강호 용수구역 내 농경지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선정에 특별한 역할을 한 '주역'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의원은 농경지에 수로가 없어 용수공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귀담아 농림부 장관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김진성 기자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1989년 착수해 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금강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개발예정면적은 8,761ha이고 추정사업비는 3,870억원이다.

이미 설치된 용수로로 인해 용수공급이 어려운 농경지에 추가로 용수로를 연결하여 물 부족 및 침수피해 방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 한다는 것이다. 김제, 군산, 익산, 충남 서천 등 금강호 용수구역 내 대부분의 농경지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영농편의를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중회 의원은 "대규모 금강2지구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용수가 확보되어 있으나 소규모 수리시설 미설치로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민의 피해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이 큰 실정이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고 정부의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역량을 총 결집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